

과제구분	농업경영공동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증장기 Code	J	RIMS Code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확산을 위한 경영 및 정보기술 체계 확립방안 연구		농업경영 SS01	'08	농업경영정보관 기술경영과	이철희
4) GAP/이력농산물의 유통·판매전략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		농업경영 SS01	'08	강원도농업기술원 작물경영연구과	김용복
색인용어	GAP, 이력추적, 소비자 선호도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mprovement methods for the early fixing and enlargement of GAP on the marketing stage respectively, through the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and the consumers preference of GAP agricultural products. The results are following as.

1. The cultivated area and yield of GAP agricultural products in 2007 were 24,753ha(2% of the cultivation acreage), 331,420ton. The rate of rice in GAP agricultural products was 56.4%, fruits 38.3%, the others 38.3%.
2. The number of the goo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certified was 42 among the 301(Rice Processing Complex), 195 among 317(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The rate of 10years past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required the repairs and reconstruction showed 87%(RPC), 48.9(APC) respectively.
3. The supplementary factors as the goo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were facilities for head rice processing, change of rustic shoot and establishment of dust collection in RPC, establishment of sanitary facilities, low temperature storage shed, sorting line of crops in APC.
4. The major shipping places of goo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were systematic shipping of agricultural cooperative, macro distribution center, department store etc. and the 30~55% of shipping products was treated in the macro distribution center-new marketing system.
5. Because of the low consumers consciousness and a few good agricultural products sold in common market, it wa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GAP system and enforce PR of good agricultural products

## 1. 연구목표

최근 농산물에 대한 소비패턴의 급속한 변화는 인증농산물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검증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먹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식중독, 중금속 유해물질 검출, BSE<sup>1)</sup>, O-157 등 식품사고의 빈번한 발생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수요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조사 제도의 도입, 인증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 안전성이 강화된 GAP제도의 시행,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원산지 표시, GMO<sup>2)</sup>표시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2003년부터 2005년에 걸쳐 3년간의 시범실시를 통한 시스템을 정비·보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GA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자유화 정도가 가속화 됨에 따른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농산물의 국가간 이동 확대로 농산물의 안정성 문제가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공감하게 되었고, 또한 정립되고 있는 안전생산 기준 규범의 실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GAP)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제도일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최소화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GAP제도는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국제적인 규범인 동시에 Traceability System 실시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그리고 소비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 및 확인 할 수 있는 체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식품을 신속히 역추적 할 수 있는 안전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AP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수확후 농산물의 세척, 가공, 선별포장 등의 단계를 수행하는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인 산지유통센터(APC, RPC)의 현황 및 실태, 농산물 처리, 유통 현황,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GAP농산물의 확대를 통한 소비촉진과 국내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 농가소득 제고 방안 및 GAP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른 인프라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 2. 재료 및 방법

GAP제도는 최종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부터 수확후의 처리단계까지 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미생물, 비료,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 오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요소와 생산이력의 기록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다.

GAP제도는 국가간의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더 이상

1)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으면서 정립되고 있는 국제적 농산물 안전생산 기준이다. 또한 식품과 관련하여 CODEX, FA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GAP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EU, 일본 등은 민간부문에서 이미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황갑준 2006).

유럽에서 개발된 GAP제도인 EUREP<sup>3)</sup>-GAP은 유럽의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또한 유럽 이외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한 최소 생산표준으로 과일, 파채류, 화훼류, 축산, 양곡, 수산물 등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는 생산표준시스템이다. 또한 EUREP-GAP은 유럽의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활동중인 선도적 소매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끌어가는 민간주도형 제도이다. 이같은 민간부문의 EUREP-GAP제도 생성의 배경에는 유럽지역에서 발생된 광우병, 유해물질 검출, GMO농산물의 증가 등의 지속적으로 식품의 안전사고 발생을 야기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유통업체 생존의 문제로 안전성에 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자체 품질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sup>4)</sup>

일본의 GAP제도 추진은 농식품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GAP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유통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국의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안전농식품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관리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JGAP, 농림수산물성 등 5개의 관리 주체별로 각기 다르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GAP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로 소비자의 혼돈을 야기, 우수농산물(GAP)이란 명칭이 품질과 등급의 우수성으로 오인, 생산 및 수확후의 관리시설 등 취약한 여건에서 HACCP기준 적용요구, 농업현장에서의 농업인 고령화에 의한 생산정보의 기록관리 부실우려, 인증기관 운영과 사후관리의 부실 등이 제도 추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sup>5)</sup>.

과거의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생산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양적증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였으나, 최근에는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식품사고의 빈번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GAP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생산 및 수확후 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 제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GAP제도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예를 우리의 GAP제도와 분야별로 차이점, 우수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관리, 유통실태 등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GAP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수확후 처리, 유통·판매 등 추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EU, 일본 등 국외의 GAP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배경과 차이점, 실태 등을 조사 하였다.

GAP제도 시행 후 국내의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우수농산물 인증실태 및 생산현황 등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 하였고,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운영실태는 산지유통시설운영자의 설문 및 정취 조사를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다. 산지유통시설은 파채류를 취

3) EUREP(Euro-Retailer Working Group Fresh Produce) : 유럽 청과물 소매상 단체

4) GAP관련 해외 출장 결과보고,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2007.7

5) 농식품 세계일류를 위한 GAP 활성화 포럼 2007.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급하는 APC<sup>6)</sup>로 강원(춘천, 화천), 충남 등과 쌀은 RPC<sup>7)</sup>를 강원(철원, 홍천, 춘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우수농산물의 유통·판매실태는 대형유통업체 구매 관계자를 방문 정취조사 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부문의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인식과 선호도 조사는 GAP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유통매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가. GAP제도의 국가간 비교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이슈는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GAP제도의 시행은 확대 추세에 있다. GAP제도를 통한 농산물의 국가간 인정을 위해서도 표준화된 기준 규범이 필요하게 되었다. GAP제도의 추진은 나라별로 자국의 실정에 따라 추진 방법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GAP제도의 추진 방식에 있어, EU는 선도적인 소매유통업체가 소비자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부응, 유통업체 존립 및 유지 등 시장원리 적용을 위해 민간 주도적으로 추진되었고,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민간 용역을 통하여 민간주도의 추진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GAP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이끌어 가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우수농산물의 추진형태 차이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에서 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는 유통주체인 소매업체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 충족 등 시장원리에 적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일본은 GAP회원에 의한 운영으로 자국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대외적 보호 및 대외경쟁력 확보 관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의 입장은 제도의 시행을 통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수요 충족, 대외경쟁력 확보 보다는 우수농산물생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가격보장에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표 1>

우수농산물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우수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 욕구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생산방식을 갖는 것이 타당하나, 농가소득 보전 없는 생산기준의 준수로 비용 증가, 농산물이력기록관리의 노력과 고충 등의 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심리 작용으로 이제도의 조기정착이 지연될 수 있어 어떠한 방식이라도 GAP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인다.

표 1. GAP제도의 추진방식 및 농가의 접근방식

구 분	한 국	E U	일 본
추진방식	민간주도(정부 기준설정)	민간주도(소매업체로 구성된 단체)	민간주도(농림수산성 용역에 의한 추진)
농가의 접근방식	가격보장에 관심 큼	시장원리에 적용하기 위한 생사(生死)의 관점	회원에 의한 운영과 자국농산물의 보호 및 대외경쟁력 관점

6)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7)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

GAP농산물은 객관성 인증이 보장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EU, 일본은 해당 농산물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인증기관지정을 통하여 농산물우수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학 등은 인증기관 기준시설 및 능력을 갖추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수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생산 및 유통과 인증이 동일기관일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수농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보면 EU는 GAP협회의 ISO guide 65, 일본은 GAP협회 사무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르고,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다. 운영방식은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의 경영수지는 분석수수료 등 일부분의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증기관의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EU는 소매유통업체로 구성된 EURREP-GAP협회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일본은 HACCP<sup>8)</sup> 운영 등의 수익으로 현상유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표 2>.

우수농산물의 확대를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경영수지의 적자문제 등은 제도 정착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농가의 인증농산물에 대한 적정수수료의 부담, 정부의 보조 등을 통하여 우수농산물의 확대에 따른 인증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표 2. GAP농산물 인증기관 기준

구 분	한 국	E U	일 본
형 태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대학 등	제3자 (사업자와 독립적인 전문 인증기관)	제3자 국제적 문인증기관 (Moody Inted Certification)
지정기준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기준(농산물품질관리법)	제품인증기관의 일반요건 (ISO guide 65)	일본 GAP협회 사무국 기준
운영방식	인증기관이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담당 - 분석업무는 필요에 따라 외부기관 위탁 - 인증기관 사후관리는 농관원이 담당	인증기관이 모두 담당 검사기관이 검사업무 분담하는 경우 - 인증기관과 검사기관 계약 - 검사기관은 ISO 17020(검사기관에 관한 요건)을 획득	인증기관 담당
경영수지	적자(인건비 부담)	협회부담	현상유지 (ISO, HACCP수익)

GAP농산물은 위생과 환경을 고려한 적합한 조건에서 재배된 후, 일정한 기준시설을 갖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정선, 선별, 포장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이용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EU는 별도

8)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and control point)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위생시설의 지정절차 없이 EUREP-GAP기준에 포함 되어 있으며, 또한 일본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관리기준에 포함하여 인증기관에서 동시에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3>.

표 3.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한 국	E U	일 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	별도의 지정절차 없고, EUREP GAP 기준에 포함(10. Produce Handling)	별도의 지정절차 없고, 관리기준에 포함하여 인증기관에서 동시검사

한편 우리나라의 GAP농산물 인증은 농촌진흥청에서 제정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해 인증하고 있으며, EU 및 일본은 민간단체인 GAP협회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또한 이제도의 참여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개별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등으로 참여하고 있고 일본은 개별 및 집단의 농장의 형태로 되었다. GAP농산물의 인증후 표시형태도 우리나라는 포장지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나, EU는 GAP제도가 유통업체와 생산자간의 품질관리에 관한 계약의 확인절차를 의미 하므로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표 4>.

표 4. GAP농산물 인증기준

구 분	한 국	E U	일 본
인증기준 (소유자)	-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농진청)	- EUREP-GAP협회 기준 (FoodPLUS)	- 일본 GAP협회 기준설정
참여유형	- 개별농업인 - 농업인단체	- 개별농업인 (EUREP-GAP, 벤치마킹) - 농업인 단체 (EUREP-GAP, 벤치마킹)	- 개별농장 - 집단농장
인증마크	- 포장지에 표시	-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유통업체와 출하시간 품질관리 계약의 확인수단	- 표시하지 않음, 동등성 인정 조건으로 JGAP 마크부착 불허

## 나. GAP 인증농산물 일반현황

### 1) GAP 농산물 현황

우리나라 GAP제도는 '03~'05(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우수농산물관리기준보완 및 수정, 현실적인 품목조정 등 제도적인 보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GAP제도 시행 2년차인 '07년 12말 현재 재배면적은 24,753ha, 생산량이 331,420톤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으며, 이는 전국 경지면적의 2%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 농가수는 16,796호로 전국농가의 1.3%수준으로써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표 5>.

표 5. GAP농산물 생산현황

면적(ha)	생산량(ton)	인증기관	참여농가(호)	비고
24,753	331,420	31	16,796	인증기관 3곳 실적없음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인증기관별 실적(2007.12.30 기준)

<표 6>은 GAP농산물의 품목별 구성 비율을 보기 위하여 인증기관별로 GAP정보서비스(<http://gap.go.kr>)에 입력한 결과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인증농가의 구성비는 쌀 56, 과채류 38.3 기타 5.2%를 보였고, 면적은 쌀이 67.5, 과채류 28.2%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협 RPC를 중심으로한 쌀 GAP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GAP제도의 선진국인 EU의 GAP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선과채류의 위생 등의 문제점에서 출발한 배경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GAP 인증농산물 품목별 구성 분석

구분	인증 농가수(호)	재배면적(ha)
계	7,111	5,191
쌀 (%)	4,011 (56.4)	3,504 (67.5)
과채류	2,727 (38.3)	1,465 (28.2)
기타	373 (5.2)	222 (4.3)

주) 한국농림수산 정보센터 GAP정보서비스 입력자료 분석(2007.10말 기준)

쌀의 산지유통시설인 RPC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운영 176, 민간업체 운영 125개소로 전국적으로 30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GAP기준의 시설로 지정된 곳은 42곳으로 전체의 14%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9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62곳으로 전체의 87% 차지하고 있어, 시설노후가 GAP제도 활성화 및 우수농산물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는 또한 GAP인증농산물 확대를 위해서는 GAP기준 시설의 보수 및 신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8>.

표 7. RPC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계	RPC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
	농협	민간	
301	176	125	42(14.0%)

표 8. RPC 년도별 설치 현황

설치년도	1998이전	1999~2002	2003~	계
개소 (%)	262 (87.0)	35 (11.6)	4 (1.3)	301 (100)

산지농산물의 유통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의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의 확보 지원과 적불보조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있다.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어 설치되고 있으나, GAP규정과 시설현대화에 미치지 못하는 산지물류센터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19,356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설기준 200평이상의 규모로 집하, 선별포장 시설, 저온저장 시설, 예냉시설 등을 갖춘 산지유통센터(APC) 기준의 시설은 317개소로서 산지유통시설이 규모화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유통센터중 우수농산물 기준시설로 195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지유통센터인 APC의 설치시기를 보면 '98년 이전설치 시설이 4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노후 시설은 GAP농산물 처리 시설기준에 따라 보수 및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표 9, 10>.

표 9. 산지유통시설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산지유통시설 <sup>9)</sup>	산지유통센터 <sup>10)</sup>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19,356	317	195

주) 출처 : 농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시설정보

표 10. APC의 년도별 설치 현황

설치년도	1998이전	1999~2002	2003~	계
개소 (%)	155 (48.9)	90 (28.4)	72 (22.7)	317 (100)

주) 출처 : 농산물유통공사 산지유통시설정보

## 다. 산지유통시설 실태

### 1) RPC

GAP농산물은 일정기준의 재배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여 수확한 후에는 우수농산물관리시설(GAP기준의 일정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시설)에서 가공, 선별, 포장 등을 위생관리상태에

- 9) 산지유통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개량저장고, 경매식집하장을 포함
- 10)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기준은 200평이상의 규모로 집하 및 선별포장, 저온저장, 예냉시설을 갖춘시설

서 처리되어야 하며 쌀은 인증된 RPC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쌀의 수확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RPC는 제도의 시행초기로 GAP기준 시설로는 준비가 미흡하여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1. 기존 RPC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시 주요 보완 사항

구 분	철원 D	홍천 H	춘천 P
설치년도	1994	2000	1993
인증년도	2006	2006	비지정
인증시 보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미 시설 보완</li> <li>- 색채선별기, 도정기 등</li> <li>○ 슈트, 승강기, 탱크 등 부식자재 교체</li> <li>- 철재⇒스테인</li> <li>○ 작업단계별 칸막이</li> <li>○ 집진시설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단계별 칸막이</li> <li>- 보완시 작업공간 활용 문제 제기</li> <li>- 추후 시설보완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보완으로 시설인증에 대한 관심 کم</li> <li>- 시설보완 자금부담 어려움</li> <li>- 보조금 신청하였으나 농협 등의 우선으로 대상에서 제외</li> <li>- 경영악화로 타직종의 전환도 고려</li> </ul>

주) 철원D : 인증시설 보완에 따른 소요금액 : 15억(기존시설의 70%이상 교체)

<표 11>은 철원D RPC는 1994년 설치된 시설로 GAP기준의 시설보완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이며 주요 보완 내용은 도정시설 내부의 기기교체, 위생시설 등의 보수 등 기존시설 70% 이상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였다. 홍천H RPC는 2000년에 설치된 시설로 운영자는 시설의 위생관리 및 지속적인 개보수를 통하여 모범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 시설은 보완후 관리시설 지정시에 작업공간의 구분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이 보완조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적인 작업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보완이 어려운 상태로 현실적 GAP기준의 이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춘천P RPC의 예는 GAP기준의 시설보완 계획 등을 통한 우수농산물생산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영세한 경영실태로 추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시설에 대한 보조형태의 확대지원이 GAP제도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하며 산지유통 기반시설의 확대지원은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GAP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GAP쌀은 지역농협이 주축이 된 RPC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추진시 운영자 의견의 대부분은 생산농산물의 식별 단위인 이력추적 로트관리는 쌀이 재배력 뿐만아니라 수확후 RPC의 건조시설, 저장시설, 재배력의 단위 등을 고려하여 20여 농가의 작목반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또한 대상농가의 GAP관련 필수 교육시의 소요되는 비용, 인력 등의 부족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GAP제도 시행에 따른 RPC 운영자 의견

철원 D	홍천 H	춘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추적 로트단위는 작목반별이 바람직함</li> <li>○ 농협주도 GAP교육시 비용, 인력 등 지원 필요</li> <li>○ 농협브랜드별 인증이 필요 - 통일, 토질, 수질, 재배방법 등 균일성 고려</li> <li>○ 자체 잔류농약 검사 등 선도적 운영</li> <li>○ GAP농산물 활성화는 농협의 선도와 의지가 중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추적 로트단위는 작목반별이 바람직함</li> <li>○ 농가별 품질차이 인정 도정후의 균일성 확보가 더 중요(색채선별, 품위 등)</li> <li>○ 품종의 단일화로 품질의 균일성 확보</li> <li>○ 도정 수율 낮추고 고품질의 고가미 유지노력 - GAP 등 품질에 대한 애착 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P농산물의확대에 대한 인식 공감</li> <li>○ 민간 RPC는 지자체 등 지원없이 기준시설 보수 위한 자금감당 어려움</li> <li>○ 2회 시설보완 지원사업 신청 경험</li> </ul>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수농산물에 대한 요구는 소비자 뿐만아니라 공급측의 산지유통 시설 운영자에게도 주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의 안전·고품질에 대한 소비수요 욕구충족을 위해 제도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GAP기준의 시설보수 및 설치를 위한 기존 산지 RPC의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판단되며 일부 개인RPC의 경우 지원이 안될 경우 사업추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농산물제도의 활성화와 소비수요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라도 기반시설의 확대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표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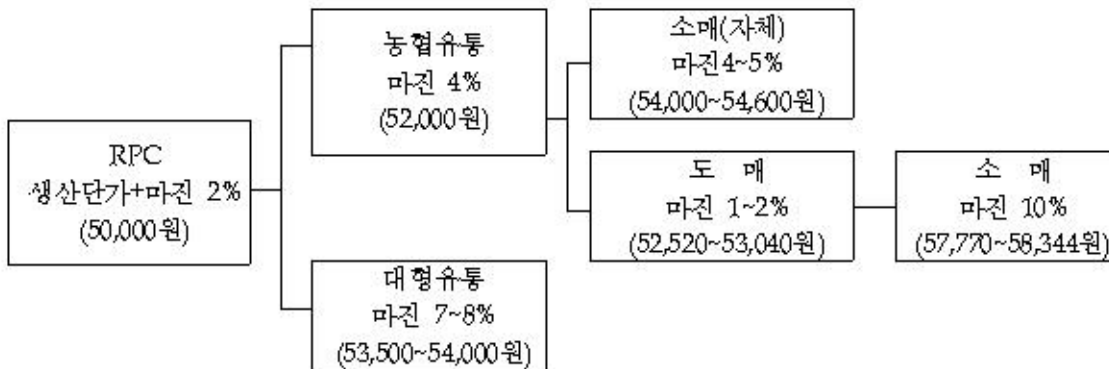
양곡관리법에 의해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RPC의 판매처 형태는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처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목할 것은 대형마트 등으로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철원 D RPC는 농협계통의 출하가 65%, 기타 대형마트 및 인터넷, 현장판매가 35%의 판매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 운영의 RPC인 홍천H의 경우 대형유통 출하가 55%, 기타 도매시장 등에 45%의 판매형태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판매처 유형은 대형마트가 30%~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이고 있다<표 13>.

표 13. RPC의 판매처별 출하실태

구분	관 매 처			기 타
	농협계통 (하나로 등)	대형마트 (이마트 등)	백화점 (신세계 등)	
철원 D (%)	65%	30%	0.1%이하	개인업체 : 3% 인터넷, 현장판매 : 2%
홍천 H	-	55%(GS 30 롯데10,홈에버 15)		도매시장 : 42% 슈퍼마켓 : 3%
춘천 P		35%(GS 25, E10)		일반재래시장 : 65 - 슈퍼, 식당, 식자재업체

농협 RPC는 쌀의 출하시 농협계통 및 대형유통할인마트의 출하처의 유통단계별로 마진율에 따른 소비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지역농협의 RPC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별 마진형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협 RPC에서는 원곡의 수집, 건조, 저장 등 제반원가에 2% 마진율을 더하여 농협유통이나 대형할인마트 출하한다. 대형할인마트에서는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7~8%의 마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협유통은 4%의 마진으로 소매 및 도매처에 출하하게 된다. 자체소매의 경우는 4~5%의 마진으로 판매하게 되고 도매시 1~2%의 마진으로 소매처에 출하하며 소매시 10%의 마진으로 소비가격이 형성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쌀의 유통 단계별 마진(☆ 철원 D)

## 2) APC

GAP제도 시행으로 신선과채류 등의 GAP농산물은 수확후의 세척, 정선가공·처리 등을 위해 산지유통시설중 GAP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춘 산지유통센터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GAP기준의 산지유통센터로 지정된 화천 H시설의 시설운영은 토마토 단일품목을 취급하며, 운영기간은 이 지역의 토마토 출하기간은 6월하순~10월하순으로 120일 이하 단기간 운영되어 투자시설의 가동율은 낮은 수준이다. 취급품목인 토마토 처리용량은 70~80톤/일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지역의 농업여건으로 토마토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비해 과투자된 시설규모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산지유통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취급 품목의 확대 및 인근지역 물량확보를 통한 거점시설로의 이용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설 이용도 제고는 선별시설, 저장시설 추가시설의 확보 등 비용의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춘천H 산지유통센터는 1998년에 설치 시설로 GAP기준의 시설보수 조건으로 인증된 시설이며 지역내 주농산물인 토마토, 오이 등 성출하기에는 처리량의 한계로 인근지역의 APC에서 처리하는 실태이다.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시 시설보수 및 자재교체 등의 조건으로 지정 되었으나, 장기적인 GAP기준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자재 등은 70%정도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표 14>.

표 14. APC별 시설현황

구분	화천 H	춘천 N
○ 설치년도	- 2006	- 1998
○ 시설인증	- 2006(작목:토마토)	- 2006(작목:토마토,오이,호박)
○ 인증시 보완 사항	- 위생시설 보완	- 품목별 선별라인 추가 - 위생시설 보완 - 노후시설 교체 등
○ 주요시설	- 선별장 570평 - 선별기 2조식 ▪ 소포장 8라인 ▪ 대포장 16라인 - 전자동 선별	- 선별장 400평 - 선별기 3대 - 저온 저장고 50평
○ 처리능력	- 70~80톤/일(8시간)	- 15~25톤/일 - 주출하기 인근 APC이용
○ 기타	- 지자체의 지역브랜드 활성화 지원으로 농협이 무상 시설임대	-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기준으로 보완계획 추진중

지자체의 지역브랜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한 APC시설을 지역농협이 무상임대하여 농협주체로 운영되는 화천H APC는 토마토의 대형유통업체 납품시 일정량의 물량확보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또한 가격 상승시 대형유통업체의 발주량 증가 요구로 인한 물량확보의 어려움 발생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춘천S APC운영은 GAP농산물생산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농가조차도 지속적인 호용도 미흡으로 인증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았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GAP농산물 생산에 따른 인증비용, 이력추적등록을 위한 농업인간 PC이용능력 차이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력추적시스템 또한 일관성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APC 시설보완에 대한 추진 일정도 예산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표 15>.

표 15. APC별 특이사항

화천 H	춘천 S
○ 대형마트 납품 포기 - 발주량 맞추기 어려움 (가격이 높을때 발주량 증가 등) ○ 저온 저장시설 미설치 - 추후 설치 희망	○ 이력추적시범 등 당초 참여농가의 호용도 적음 - GAP 인증비용, PC이용능력 등 ○ 이력시스템의 일관성 확보필요 ○ 시설보완 여건, 예산문제로 어려움 - 시설보완 보조사업신청 추진중

APC의 출하형태는 농협계통 30~40%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유통마트는 일정량의 발주물량 유지의 어려움 및 가격등락에 따른 발주물량 적시 출하 등의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타로 도매시장 및 개인상회 납품, 직거래 등 다양한 출하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16. 판매처별 출하량

구분	판 매 처			기 타
	농협계통 (물류센터등)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등)	백화점 (신세계 등)	
화천H 점유율(%)	30%	- 발주물량, 가격 문제로 거래 없음	-	도매시장(2곳), 개인상회(강서) 등 : 70% 전체면적 70농가 30ha 5ha 무농약(GAP)
춘천 S	40%	15%	5%	도매시장 : 30%, 직거래 : 10%

### 3) 기타 GAP농산물 관리시설 특이사항

APC의 시설운영 유지를 위한 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2%정도 였으며, 운영주체는 도매시장, 유통업체 등의 납품관련 협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최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 사용 증가 추세는 지자체의 브랜드 활성화 추진과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GAP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생산농가 및 단체의 2곳 이상 인증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GAP인증농산물은 생산 및 수확후 위생적인 관리시설 이용 등 비용 발생으로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생산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부족과 우수농산물의 차별성 부족으로 소비부진과 재고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일반농산물로 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 라. GAP농산물 유통·판매실태

##### 1) 대형유통업체의 GAP농산물 판매실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실태는 GAP농산물의 구분된 매대형태로 판매되지 않고 일반농산물과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상품목은 과채류의 사과, 배, 토마토, 파프리카 등과 쌀이 판매되고 있었다.

GAP농산물은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이 15~25%정도 높게 형성되어 친환경농산물 수준의 가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판매되고 있는 전체적인 농산물의 구성비는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GAP농산물은 과채류의 성수출하기에 2.5%, 비성수기에는 0.1%정도로 적었다.

## 2)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구입 및 판매경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농산물구입 형태는 업체의 구매팀에서 품목 및 물량이 결정되면 농산물 발주가 이루어지게 되고 발주된 농산물은 대도시 인근의 자체 물류센터에 집하되어 전국적인 유통점포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GAP농산물인 과채류 등이 일반농산물과 같은 매대에 혼재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친환경농산물 수준의 물량확보와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차별화된 매대설치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마.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대형유통매장 농식품 판매코너 방문객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GAP농산물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10명중 11명이 알고 있다는 응답을 보여 GAP의 인지도는 10%정도이며, 모른다는 응답자가 99명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GAP제도의 본격시행 2년차로 아직 GAP농산물에 대한 홍보부족과 생산되어 판매되는 유통 농산물의 부족으로 인해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우수농산물에 대한 구입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6%인 4명이 있다라는 응답을 하였고 96.4%가 없다고 답하여 낮은 인지도 및 구입정도를 나타냈다. 우수농산물의 구입동기에 대한 질문에 안전성, 친환경적인인 농산물이란 응답을 주로 하였다. 또한 GAP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가격지불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 위한 질문은 GAP제도의 생산 및 관리과정 등을 설명한 후 결의 하였다. GAP농산물의 일반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차이는 5%, 16.4%, 10%, 27.3%, 20%, 13.6%였으며 기타도 42.7%를 보였다<표 17>.

GAP농산물제도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시판되고 있는 GAP농산물의 양도 미미하여 생산량의 증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표 17. 우수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소비자 선호도 조사	응답내용
• 우수농산물(GAP)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다(11명, 10%), 모른다(99명, 90%)
• 우수농산물(GAP)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4명, 3.6%), 없다(107명, 96.4%)
• 우수농산물(GAP) 구입 동기는 무엇입니까?	• 안전성(3명), 환경친화적농산물(1명)
• 우수농산물(GAP)에 관하여 설명한 후 우수농산물(GAP)과 일반농산물의 적정 가격차이는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18명, 16.4%), 10%(30명, 27.3%), 20%(15명, 13.6%), 기타(47명, 42.7%)

## 4. 적 요

본 연구는 GAP/이력농산물의 유통·판매 전략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연구를 통하여 우수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문제점 파악하여 제도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GAP인증 농산물은 24,753ha, 331,420M/T로 전국 경지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고 품목별 비중은 쌀 56.4, 파채류 38.3 기타 38.3%로 쌀이 재배면적 및 생산량을 주도하고 있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 현황은 RPC는 301개소(농협, 민간) 중 42개소(14%), APC는 산지유통센터 317개소중 195(61.5%) 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경과 10년 이상인 시설은 RPC 87.0%, APC 48.9%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는 미흡하여 보수 및 재건축이 필요하였다.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시 주요 보완사항에 있어 RPC는 완전미 시설, 슈트 등 부식부분, 작업부의 구분, 집진시설, APC는 위생시설, 저온저장고, 품목별 선별라인 설치 등이 주요 보완사항 이었다.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주요 판매 출하처는 RPC는 농협계통출하,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다양하였고, 출하량의 30~55%가 신유통시스템인 대형유통업체로 비중이 높았다.
5. GAP농산물제도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시판되고 있는 GAP농산물의 양도 미미하여 생산량의 증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GAP농산물에 대한 소비 홍보방안 강화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5. 인용문헌

- 김성자. 2003.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푸드시스템의 새로운 방향, 농촌경제 제 26권 제2호.
- 김장길, 김태영 외. 200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농정연구속보 p.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장길, 김태영 외. 2004.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농정연구속보 2004-2 (제7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2007.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매뉴얼.
- 농촌진흥청 2007. 농식품 세계일류를 위한 GAP 활성화 포럼 2007.
- 농촌진흥청. 2006.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경영성과 및 유통실태 분석.
- 송성환, 김연중 2005. 김치 안전성 과잉과 김장 수요 전망, 농정연구속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동근 등. 2007. GAP관련 일본 출장결과 요약, 농림부.
- 조동근, 이승돈 외. 2007. GAP관련 해외 출장결과 보고, 농림부.
- 최지현, 김민경 외. 2006.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본.

최지현, 이계임 외.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12~133.

황갑준. 2006. 시설원예작물의 GAP 도입에 관한 연구, p. 7~17.

## 6. 연구결과 활용

연도 (연차)	활용구분	제 목
2007년도 (1년차)	시책건의	GAP기준 RPC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 7. 연구원 편성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8
책임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김용복	세부과제 총괄	○
공동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한중수	경영분석	
공동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모영문	문헌수집 및 조사	
공동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송재기	문헌수집 및 조사	
공동연구자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광현	현지조사	○
공동연구자	화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이승태	현지조사	○
공동연구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사종구	연구자문 및 자료분석	